

# 한국어에서 상태성 명사 수식 정도부사의 처리에 관한 연구

박성원<sup>○</sup> 민창우 김성목  
한국IBM 소프트웨어연구소 한국어처리팀  
{parksw, mincw, smkim}@kr.ibm.com

## A Study on Korean Language Processing of Degree Adverb modifying Stative Noun

Sung Won Park<sup>○</sup> Chang Woo Min Seong Mook Kim  
Korean Software Development Institute, IBM Korea

### 요 약

한국어에서 부사는 관형사와 구별하여 통사적으로 명사 등의 체언을 수식할 수 없다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미적으로 상태성 명사와 수식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도부사의 경우에도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사를 보어로 취하는 지정사를 포함한 지정사구 전체를 수식한다는 것이 현재의 이론언어학에서의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난 실제 문장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관점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지정사구가 아니라 상태성 명사 자체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거로서 말뭉치에서 추출한 실제 문장을 중심으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지정사구에 지정사가 생략되는 경우와 지정사구 형태가 아닌 다양한 명사구 형태 역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인다. 또한, 정도 부사와 결합하는 명사들이 갖는 의미적 특성을 통해 정도부사와 명사와 결합시켜야 수식 관계의 처리에 용이함을 보이고 정도부사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도 타당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말뭉치에 나타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용례를 분석하여 빈도 및 하위 분류 특성을 살펴 본다.

### 1. 서론

한국어에서 부사는 용언이나 동사구, 관형사구, 다른 부사구, 절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한다. 즉 한국어에서 부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이외의 여러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낱말을 말하며<sup>1</sup>,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는 ‘바로’, ‘오직’, ‘무려’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부사라기 보다는 관형사로 취급하는 것이 이론내적 입장이다[4]. 부사의 하위 부류 중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설정되는 정도부사<sup>2</sup>는 상태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부사, 관형사를 수식한다. 이외에도 ‘아주’, ‘더’, ‘가장’, ‘꽤’ 등의 정도부사가 “명사+이다” 형태의 지정사구를 수식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명사가 지정사구의 보어인 경우에 한하여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 즉, 정도부사는

의미적으로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지정사와 결합한다는 통사론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부사가 관형사의 역할인 명사 수식 기능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정도부사의 기능을 통사적으로 일관되게 정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계처리를 위한 구분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단어들 간의 수식관계를 찾아내기에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정사는 음운적 환경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 더욱 쉽게 생략되어 명사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정도부사와 결합하는 것이 생략 가능한 문법 형태소인 지정사라고 본다면, 기계번역 과정에서 지정사의 원래 위치에 지정사를 복원하여야 정도부사와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기계처리에 지정사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잘못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실제 말뭉치에는 정도부사의 피수식어가 되는

<sup>1</sup> 일반적으로 활용이 없이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지닌 품사는 관형사이다[2].

<sup>2</sup> 이 논문에서 정도부사(degree adverb)의 개념은 *qualifier*나 *intensifier*로 표현될 수 있으며 *comparative*를 포함하고 있다.

명사가 지정사구 뿐만 아니라 주격\ 목적격\ 부사격\ 관형격 등 다양한 격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 지정사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고 실제 말뭉치를 처리하려는 입장에서는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지정사구에 한한다는 기존의 설명은 한계점을 드러낸다.

셋째, 정도부사가 수식하는 명사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정도부사의 수식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부사가 직접 수식하는 것이 명사 자체가 아니라 지정사로 본다면 정도부사와 명사 사이에 존재하는 선택적 제약을 표현하기 어려우며 문법적 관계가 의미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게 된다. 나아가 정도부사가 자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을 설명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도부사를 수식 받는 명사와 직접 결합시켜 위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도부사 구문의 기계 처리에서 구문분석 오류를 줄이기에 유리함을 보여 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정도부사인 ‘아주’, ‘더’, ‘가장’, ‘제일’, ‘매우’이 명사를 의미적으로 수식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수식하는 경우가 실제 말뭉치에 다양하게 존재함을 보인다. 그리고 수식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정도부사와 명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도부사의 피수식어가 될 수 있는 명사로서의 의미자질과 그 특성을 살펴 본다.

## 2. 관련연구

명사를 의미적으로 수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사는 정도부사이다. 그러나 정도부사는 명사가 아니라 지정사구와 같은 명사적 서술어를 수식한다는 문법적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도부사는 “명사구+이다”의 지정사구를 수식하는 일이 있다[1].

- (2a) 그이는 매우 부자이다.
- (2b) 그이는 꽤 멋쟁이다.
- (2c) 그애는 펍 바보이었다.

- (2d) ?매우 부자가 간다.
- (2e) ?꽤 멋쟁이를 만났다.

(2a)~(2c)에서 보듯이 정도부사는 지정사 ‘이다’와 결합된 보어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도부사가 의미적으로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문법적인 제약은, 그 명사구가 서술 보어일 때로만 한정된다[1][3]는 것이 기존의 이론언어학적 입장이다. 따라서 (2d)와 (2e)처럼 정도부사의 의미적 수식을 받는 명사구가 지정사와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이라고 본다.

또한 (2a)~(2c)에서 지정사의 보어 명사가 “돈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형용사+명사”로 의미분해(decomposition)가 가능할 때 정도 부사

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보어 명사가 “형용사+명사”로 의미분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1][2][3].

- (2f) \*그가 매우 선생이다.
- (2g) \*그것이 무척 집이다.

(2f)와 (2g)에서는 보어 명사가 각각 “가르치는 사람”, “사는 곳”으로 해석되므로 ‘동사+명사’로 의미분해가 가능하므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정도부사가 수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로 형용사들과 관형사인데, 이들은 의미적으로 사물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자질도 [+상태성] 또는 [+정도성]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따라서 명사가 [+상태성] 자질을 갖는 경우, 즉 “형용사+명사”의 형태로 의미분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지정사구를 이룰 수 있다. (2f)와 (2g)에서 ‘선생’과 ‘집’이라는 단어에는 ‘부자, 멋쟁이, 바보’ 등과 달리 상태성이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특히 우리말에서는 한자어가 많고 그런 한자어 성분들의 결합관계가 구문론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자 명사의 경우 의미분해를 거치면 “형용사+명사”의 형태로 분석될 수 있고 이 중 형용사 부분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2]. 즉 형용사적인 성격, 즉 상태성을 갖는 명사로 이루어진 지정사구를 수식하는 것은 원래 정도부사의 주된 수식 대상은 형용사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 3. 정도부사의 명사 수식성

정도부사의 경우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론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부사가 관형사의 역할인 명사 수식 기능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처리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빈번하게 생략되며 복원하기 힘든 지정사를 복원할 필요가 없다. 둘째, 실제로 정도부사가 지정사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언어 입력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도부사가 명사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결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식관계는 정도부사와 상태성 명사임이 분명해지며, 따라서 실질적인 수식관계를 더 잘 반영하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을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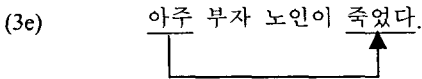
### 3.1. 지정사의 빈번한 생략 현상

한국어에서 지정사는 쉽게 생략될 수 있는데,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기계번역 과정에서 생략된 지정사의 위치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

- (3a) 아주 부자 노인이 죽었다.
- (3b) 아주 부자인 노인이 죽었다.
- (3c) 그는 아주 정치적 술수에 걸려들었다.
- (3d) 그는 아주 정치적인 술수에 걸려들었다.

(3a)와 (3c)는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지정사구의 보어 명사에 한한다는 기존의 이론언어학적 해석에 따르면 비문이지만, 실제 언어현상에서 관찰될 수 있다. 위의 문장에서 (3b)가 (3a)보다, (3d)가 (3c)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 있고, 따라서 (3a)의 문장에서 ‘부자’다음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는 지정사·인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지정사는 문법적 기능만을 드러내며 실질 의미가 없이 명사와 항상 결합해야 하는 형식 용언이기 때문에 자주 생략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번역의 과정에서는 ‘부자 노인’을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익숙한 결합 형태로 보고 지정사 복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3a)는 파싱 결과 ‘아주’를 동사 ‘죽었다’와 결합시키는 잘못된 트리 구조를 도출할 위험이 있다.



### 3.2. 정도부사와 다양한 명사구 활용과의 결합

실제 말뭉치에는 지정사구 이외의 명사구가 주격\ 목적격\ 부사격\ 관형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경우에도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문장이 많다.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명사가 지정사구를 이루는 경우로 제한한다면, 이렇게 주격\ 목적격\ 부사격\ 관형격으로 다양한 활용 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기계번역에서는 올바르게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 (3f) 아주 어린애들은 이것저것 가려보지 못하고...
- (3g) 제일 고역은 큰 애 도시락 싸는 일이었다.
- (3h) 아주 소량을 첨가해 의류를 흰색으로 물들인다.
- (3i) 삶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 (3j) 아주 최근에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 (3k) 불광동의 방향은 아주 구체적으로 피로움의...
- (3l) 자연주의 운동보다도 더 과거지사로 되어버린...
- (3m) 단 한 차례 아주 극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
- (3n) 가장 긴 글이자 가장 근자의 논문인 [민족문화론...
- (3o) 위도상으로도 좀 더 고위도 지점에 해당되어서...
- (3p) 이런 태도는 조금 더 정신주의적 색채를 띌 수 있다.

(3f)~(3q)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다양한 경우이다. 이들 정도부사 중 ‘가장’은 684372어절의 말뭉치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2.03%였다는 연구도 있다[8]. 이 때 명사는 주격, 목적

격, 부사격, 관형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f)와 (3g)에서는 “아주 어린애들은”과 “제일 고역은”이 주격으로 사용되었고, (3h)와 (3i)에서는 목적격으로 사용되었다. (3j)~(3l)에서와 같이 ‘명사+부사격 조사’의 형태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아 부사격으로 사용된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3k)의 ‘구체적으로’처럼 “명사+적+‘으로’”의 형태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 역시 빈도가 높았다. 또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격으로 사용된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3m)와 (3n)처럼 명사와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와, (3o)과 (3p)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 역시 (3p)처럼 “명사+적”의 형태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도부사가 지정사구의 보어 명사가 아닌 명사의 경우도 수식할 수 있다고 정의하여야 말뭉치에 실제로 존재하는 위의 문장들을 기계번역의 구문분석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다.

### 3.3. 정도부사와 상대성 명사의 결합성

2장에서 요약했듯이, [+상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특정 명사들로 구성된 지정사구만이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정도부사와의 결합제약을 주는 것은 지정사가 갖는 문법적 자질이 아닌 명사가 갖는 상대성 자질의 여부이다. 즉, 정도부사는 의미적으로 상대성 명사와 결합하는 선택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도부사가 지정사구를 수식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의미적 관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 수식 구조가 의미적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정도부사와 결합하는 것은 지정사가 아니라 명사로 설정하는 것이 문법적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택적 제약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관점에서도 정도부사와 명사를 직접 결합시키는 것이 형태적으로는 지정사구와 결합하고 의미적으로는 지정사가 취하는 보어인 명사의 의미제약을 선택하는 간접적 처리보다 쉬우며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정도 부사가 갖는 의미적 특성으로 [+상대성] 자질을 갖는 어휘와 결합하는 공통적 특성을 추출할 수 있으며 정도 부사의 피수식어가 형용사, 관형사, 부사, 명사라는 다양한 품사에 걸쳐 있어도 모두 [+상대성] 자질을 갖는 어휘 형태소를 일관되게 수식하고 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다.

### 4. 말뭉치 추출 결과

146,565문장 1,660,894어절로 구성된 말뭉치에서 5개의 정도부사 ‘아주’, ‘더’, ‘가장’, ‘제일’, ‘매우’에 대하여, 이들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전체 문장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 4.1. 정도부사의 다양한 명사구 수식성

일단 5개 부사 바로 뒤에 명사가 온 경우를 추출하였는데, ‘아주’가 131회, ‘더’가 630회, ‘가장’이 455회, ‘제일’이 49회, ‘매우’가 172회였다. 그 중 부사와 명사가 수식관계가 아닌 경우와,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되 명사가 지정사구 등의 용언을 이루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사가 부사격\관형격\주격\목적격으로 사용된 경우를 다시 선별한 것이다. 결과는 [표1]에서와 같이 ‘아주’가 10.7% (14/131), ‘더’가 4.60% (29/630), ‘가장’이 12.3% (56/455), ‘제일’이 22.4% (11/49), ‘매우’가 2.9% (5/172)였다.

이 중 명사가 용언을 이루지 않는 경우, 즉 명사가 부사격\관형격\주격\목적격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빈도는 [표2]과 같다. 이처럼 정도부사의 피수식어 명사는 지정사구나 용언을 이루지 않는 경우라도 다양한 격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아주            | 더              | 가장             | 제일            | 매우             |
|-----------------------------|---------------|----------------|----------------|---------------|----------------|
| 피수식 명사가 용언으로 활용             | 79<br>(60.3%) | 167<br>(26.5%) | 302<br>(66.4%) | 8<br>(16.3%)  | 147<br>(85.5%) |
| 피수식 명사가 주격/목적격/부사격/관형격으로 활용 | 14<br>(10.7%) | 29<br>(4.6%)   | 56<br>(12.3%)  | 11<br>(22.4%) | 5<br>(2.9%)    |
| 명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음         | 38<br>(29.0%) | 434<br>(68.9%) | 97<br>(21.3%)  | 30<br>(61.2%) | 27<br>(15.7%)  |
| 합계                          | 131           | 630            | 455            | 49            | 172            |

[표1] 정도부사 바로 뒤에 위치한 명사의 활용도

|                       | 아주 | 더  | 가장 | 제일 | 매우 |
|-----------------------|----|----|----|----|----|
| 명사+ 부사격조사             | 12 | 26 | 40 | 5  | 5  |
| 명사+ 관형격조사             | 3  | 0  | 6  | 1  | 0  |
| 명사+ 주격조사 <sup>3</sup> | 2  | 2  | 3  | 2  | 0  |
| 명사+ 목적격조사             | 1  | 0  | 3  | 0  | 0  |
| 명사+명사                 | 1  | 5  | 6  | 3  | 0  |
| 합계                    | 14 | 29 | 56 | 11 | 5  |

[표2] 정도부사의 피수식 명사가 용언을 이루지 않는 경우의 활용도

#### 4.2. 상태성 명사

말뭉치에서 추출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 중 지정사의 보어가 아닌 명사들은 [표3]에 나열한 바와 같다. 이들 명사들은 ‘어린애’, ‘오래전’, ‘젓빛’ 등의

순우리말과, ‘고위도’, ‘북쪽’, ‘최근’, ‘소량’, ‘고급’ 등의 한자어와, ‘구체적’, ‘근본적’, ‘효율적’ 등 “한자어+적”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순우리말에서는 ‘위쪽’, ‘어린애’, ‘오래전’ 등의, 한자어에서는 ‘고위도’, ‘북쪽’, ‘양질’, ‘소량’ 등의 “형용사+명사”가 결합한 복합어인 대표적 예로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빈도 역시 높았다. 그리고 ‘구체적’, ‘효율적’, ‘직접적’ 등 한자어가 명사파생 접미사인 ‘적’과 결합한 경우는 [+상태성] 의미자질이 더욱 분명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지정사구의 보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명사는 상태성 명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상태성 명사로 이루어진 지정사구가 아니라, 상태성 명사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    | 순우리말  | 한자어   | 한자어+적 <sup>4</sup>  |
|----|---|---|---|
| 아주 | 오래전(3), 탄판, 오랜만, 옛날, 바보, 어린애                | 근처, 초기, 예전, 최근, 요행, 소량, 극소량, 전, 고급  | 구체적, 퇴폐적  |
| 더  | 큰소리, 젓빛, 뒷날, 위, 여럿                          | 이상(9), 북쪽(2), 고위도, 과거지사, 북쪽, 이전, 문제, 고위도                                      | 체계적, 제한적, 구체적(2), 단적, 매력적, 근본적(2), 적극적, 긍정적, 본질적, 경쟁적, 직접적, 지속적, 복합적, 일반적, 정신주의적, 신경질적            |
| 가장 | 가운데, 뒷자리, 마지막, 가까이, 밑바닥, 오래전, 문제거리, 뒷쪽, 바깥쪽 | 역점사업, 최소한, 고급(3), 핵심(2), 최선, 대형, 양질, 기본(2), 최근(2), 근자, 초기, 기본, 주요, 극한, 서편, 위층 | 효율적(2), 민주적, 직접적(5), 이치적, 적극적(3), 모법적, 대중적, 일반적, 단적(2), 본질적, 충격적, 구체적(2), 선진적, 효과적, 원초적, 성공적, 원시적 |
| 제일 | 마지막, 뒷자리, 처음, 첫째(2), 위쪽                     | 고역, 명물, 하급, 빈농  |   |
| 매우 |   |   | 감성적, 포괄적, 회화적, 강력적, 효과적   |

[표3] 지정사구의 보어가 아니면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sup>4</sup>

<sup>3</sup> 이 때 “명사+ 주격조사”에는 보조사 ‘은’, ‘는’이 붙어 문장에서 주격으로 사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sup>4</sup> 괄호 안의 숫자는 출현빈도가 1회 이상인 경우의 출현빈도를 의미한다.

[표3]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피수식어 명사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큰소리’, ‘바보’, ‘어린애’ 등과 같은 전형적인 상태성 명사 이외에도, ‘오래전’, ‘오랜만’, ‘초기’, ‘옛날’ 등의 시간 명사가 있다. 또한 ‘북쪽’, ‘윗자리’, ‘밀바다’, ‘바깥쪽’ 등 장소 명사와, ‘첫째’, ‘소량’, ‘극소량’ 등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다.

###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이론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도부사가 명사를 의미적으로 수식하는 경우는 상태성 명사가 지정사구의 보어로 사용되었을 때에 한한다고 해석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정도부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실제 말뭉치의 문장들을 중심으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사들은 역시 상태성 명사임을 보였다. 따라서 명사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정사와의 결합성이 아니라 명사가 상태성 자질을 갖는지의 여부라는 것이다. 또한 정도부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입장을 구문 분석 과정에 도입하면 수식관계의 처리 및 이론적 설명에 유리함을 주장하였다. 명사에 [+상태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추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일반적인 상태성 명사 이외의 시간 명사, 장소 명사, 수량 명사 등이 일차적인 후보가 될 수 있다.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구문분석의 관점에서는 실재하는 말뭉치처리에 중점을 두는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정도부사가 수식하는 상태성 명사와의 문법적 관계에는 의미적 자질에서 기인하는 의미적 관계가 중요하다. 한국어에서 정도부사가 상태성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않고 지정사구를 수식한다고 보았던 통사적 설명은 본래 부사의 범주에 대한 이론언어학적 정의 자체가 모호함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후 더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서정수, 1978, “국어문법연구”, 탑출판사
- [2] 서정수, 1996, “현대 국어 문법론”, 한양대 출판부
- [3] 임유중, 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4] 김경훈, 1996 “현대 국어 부사어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5] 김병무, 최운학, 1988, “조선어 동사 및 부사 사용편람”, 한국문화사
- [6] 김선희, 1985,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분석”, 한글 187
- [7] 김경훈, 1990, “부사 및 부사화”, 국어연구회(편)
- [8] 신승은, 서영훈, 2000, “부사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구조 중의성 해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 [부록] 말뭉치에서 추출한 명사 수식 부사 리스트

#### A. ‘아주’

##### <명사+부사격 조사>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와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을 상상해 보기를 잊어버렸다.

그녀는 끝내 잠이 들었고 나도 그녀의 아주 근처에서 잠이 들었다. 최근엔 우주의 아주 초기에 격한 팽창이 있었고 그 이후엔 빅뱅이론과 같은 비교적 느린 팽창이 있었다는 급팽창 모델이 등장해 빅뱅이론의 몇 가지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먼저번과는 아주 단판으로 친절한 빛을 띤 안주인이 누런 송늬와 식은 밥 대운 것을 더 가지고 나와서 두 사람에게 극진히 권했다.

6월 19일 엄마의 나들이 아주 오랜만에 엄마와 아빠께서 동창회 모임으로 양산 내원사라는 절에 놀러를 가셨다.

그리하여 아주 최근에는 영입비밀이나 특허권을 통한 보호가 다시 큰 관심으로 부상하였다.

나도 스페인에서 아주 전에 기관장으로 5년간 승선 경험이 있어요. 그 중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동쪽의 불암사(불암산 소재), 서쪽의 진관사(북한산 비봉), 남쪽의 삼막사(관악산의 삼성산), 그리고 북쪽의 승가사(북한산 비봉) 등 4개 사찰을 특별히 정하여 석탄일등에 수도 한성이 온전히 수호되고 더불어 국가가 태평하기를 빌었다.

아무도 짐 짓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동물들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알비누스라는 남자가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었다. 불광동의 방황은 아주 구체적으로 괴로움의 시절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노출이 심해서 그랬는지, 그녀는 서양영화에나 등장하는 고급 풀걸 처럼 아주 퇴폐적으로 보였다.

##### <명사+관형격 조사>

어느 신문사에서 잠시 수습기자 노릇을 하던 아주 예전의 일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한은 총재가 임기를 보장받는 것은 자신의 임기 4년이 정부의 교체와 맞물리지 않는 아주 요행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90년 단 한 차례 아주 극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주격>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아주 어린애들은 이것저것 가려보지 못하고 손놀림도 아직 서투니까 손을 방울처럼 그리기도 하고, 눈을 단추구멍처럼 그려놓기도 하지.

##### <목적격>

아주 소량을 첨가해 의류를 흰색으로 얹게 물들인다.

##### <명사+명사>

그건 아주 고급 구두여요.

#### B. ‘더’

##### <명사+부사격조사>

그때 영덕이 더 큰소리로 소리쳤다.

창 밖의 하늘과 햇빛이 점점 더 잿빛으로 짙어 갑니다. 물론 그 완전한 성취는 더 뒷날에 가서야 실현되었지만, 이 농업생 산력의 발전이야말로 이 시기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의 가장 큰 원 천으로서 작용하였다.

그 마을 북쪽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그 마을보다 더 북쪽에 있는 마을은 그 산지로 막히므로, 고포마을 전체가 원자력발전소의 보조급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세계관은 불교에 영향을 주어 불교도들도 제석의 장소 즉 수미산 정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도솔천 즉 부다가 탄생 전에 살던 곳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환의 씨앗은 훨씬 더 이전부터 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자연주의 운동보다도 한층 더 과거지사로 되어버린 상물외 리, 뒤랑띠 등 1850년대 프랑스의 '사실주의' 비평가들의 입장과 구 별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 남산 능선의 북측에서 북한산에 이르고 더 북쪽으로는 위산(元山)까지 연결된 화강암의 큰 덩어리는 저반(砥礮)이라고 불린다.

철규가 대답이 없자 병철은 아까보다도 더욱 더 신경질적으로 소리 쳤다.

지금까지 교정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우 방식을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적인 교정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자의적으로 불심검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더욱 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종래 견해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인류학 이론이 한국, 고대국가 형성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고고학적 지식이 넓게 원용되었 다.

미혼여성들이 따뜻하고 뜨거운 남자를 좋아할 것 같지만 반대로 '쿨 보이'를 더 매력적 남성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는 아이들에게 물건 훔치기, 싸우기,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학 교 수업을 빼먹거나, 술, 담배, 화장을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표현하는 행위다.

이는 다시대의 속성이 맞는데 비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더 긍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넌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지.

과학자가 한 명의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사회의 과학기술 수준, 연구 풍토,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의 시대 사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론 과학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설계 과정, 선택 과정, 체계화 과정, 개량 과정 전반에 걸친 사회의 여러 요소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결정 한다고 본다.

이렇게 남녀가 서로 다른 이유는 미켈로씨에 의하면 남자는 선천적으로 여자보다 더 경쟁적으로 태어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 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웃은 더 직접적으로 삶의 떠나감으로 하여 이질감을 주는 것이 된다.

죽은 동물의 시체, 시들이 버린 꽃은 더 단적으로 삶의 거기 있음과 없음이 물질적 존재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퇴폐 예술은 물론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감각은 더 일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교훈적 의미를 갖 는다.

이것은 예술의 상태가 그렇고, 그러한 상태 아래 놓여 있는 예술에 대한 이해로 하여 그러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삼 자체가 그 전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어떠한 의미 있는 곡선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살려 하는 것도 이러한 충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주어>

더 문제는 구속의 기산점은 영장 발부시이므로 임의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연행되어 경찰의 보호실에서 유치되었던 24시간 혹은 48시간의 실질적 구금 시간은 아무런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돌이, 셋이, 더 여럿이, 모두 다 수평선을 바라본다.

<명사+관형격조사>

그러로서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는 게 귀찮았던 모양이다. 통상과 외교에 관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민주화와 능률화를 요청하는 내부조건의 변화는 더 이상의 공소함과 머뭇거림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쪽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과학 기술 예산 부족을 들어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속기가 부시 대통령 출신자인 텍사스 주에 건설되는 것이어서 정상 회담 때 정치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군의 사기와 단결을 위해 앞으로 더 이상의 시비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학문화라는 것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저에게 대학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지식에 더 이상의 기대를 걸 수 없게 되고 보면 다른 부장품이나 유 물이라도 찾아볼 수가 있어야 했다.

지점은 일단 거기서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를 참아 두기로 작정했다.

더 이상의 언급도 대꾸도 없었다.

단지, 수군이 남해안에서 연전 연승하여 더 이상의 조선정벌군을 오 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군량의 조달도 어렵게 하여 왜군을 곤경에 빠뜨렸다.

<명사+명사>

한국지리상 북쪽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며, 위도상으로도 좀 더 고위도 지점에 해당되어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태도는 조금 더 정신주의적 색채를 띠 수 있다.

C. '가장'

<명사+적>

나는 영국 여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다.

이렇게 특별입법으로 만들게 된 주된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주관부처를 저작권법을 다루는 문화부 대신 과학기술처로 함으로써 첨단산업인 컴퓨터 관련 산업에 대해 과학기술처가 갖고 있는 지식의 노하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 의회 의원들은 주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공평한 것은 무엇인가?

H씨는 배를 타기 전 육군 상사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던 분이고, L씨는 전매청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는 사람으로 이번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격려해 주고 있었다.

로버트 롱고(40)는 이번 출판작가 가운데 가장 이직적으로 예술 세계를 펼치는 작가이다.

부산 일신 기독교 병원(원장 박경화)은 설립 초기부터 모유 먹이기 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해와 이 지역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요즈음 단의 종류 중에는 공단이 제일 많이 쓰이는 재료로 겨울용의 대명사처럼 되어있고, 화학섬유의 공단은 가장 대중적으로 한복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묘사의 수사적 효용을 극대화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예술 문장이라는 뜻일 뿐, 실용 문장에서 묘사의 일반적 효용을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는 합성사진은 파스텔 톤으로 컬러의 변화를 주거나 사진의 배경색만을 바꿔주는 것, 향락산업의 변장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여가 문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가장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말 중의 하나는 시인 석하의 서포리 방문사건이었다.

만약 수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후천개벽이 오만년 이전 선천개벽(先天開闢)을 다시 반복하는, 뒤집는 그러한 개벽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개벽은 크게는 우주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구체적으로는 인류문명사에 있어서의 대전환이며 인간 자신의 정신혁명과 사회적인 적극적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전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이 실제 인간사회 안에서 가장 적나라한 상태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이다.

‘근곳·비우는 운동·결핵’의 주체는 못 가진 자와 가진 자나 소시민 할 것 없이 두루 모두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대중·근로대중·소외대중 등으로 여러 가지 종(種)적인 개념들을 늘어놓을 수 있겠다.

소유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수할 수 있겠다.

리얼리즘론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소설일 터이고, 이 분야에서 60년대 중반에 재개된 김정환의 활동과 70년대초의 {객지}로 비롯되는 황석영의 작업이 리얼리즘론의 전개를 위해서도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가)~(마)까지를 심리소설 수준에서 구출해내어 현실의 허위인식을 드러내보이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러한 언어판은 막바로 의미생산으로서의 문학이 가장 원초적으로 대면하는 국면이라 할 만하다.

이것은 상품의 포장술에서 가장 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예술에 있어서도 그러한 표현적 완성이 있을 수 있다.

예술을 가장 직접적으로 사회와 정치의 함수로 보고자 한, 한 이론가의 말로도 “예술은 현실로 인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성과 물질을 포함한 여러 필요와 욕구의 사회적 배분을 규정하는 정치 기구의 바탕에는 가장 원시적 의미의 강제력, 즉 폭력이 깔려 있다.

그 뒤 파천군의 전결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광무 년간의 양전사업을 통해서이다.

새마을 운동으로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 살게 된 나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중진국으로 발돋움했고, 올림픽 역사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88 서울 올림픽을 가장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명사+부사격조사>

그리고 가장 가운데에는 영주의 성체가 있을 것이다.

모든 제조 공장에서는 제품을 가장 양질(良質)로 만들 수 있는 적온 적습(適溫 適濕)이 있어 일기 예보로써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그늘에도 어떤 법도가 있어서 가장 윗자리에는 어른이 앉고 어린 것들은 아랫자리의 흙에 앉았다.

냉동건조 커피(freeze dried coffee)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냉동건조공법으로 만들어진 고급 인스턴트 커피이다.

유럽의 여러 곳엔 추수가 끝난 뒤 가장 마지막으로 벤 벚단으로 인형을 만들어 텅 빈 들판의 한 구석에 세워 두는 관습이 있었다.

20세기 초반은 철학적 인간학의 창시자인 셸러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인간이 인간에 대해 가장 문제거리로 등장한 시대였다.

하지만 전 언제부턴가 매달 여의주를 받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제 동료 전우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방교육부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90년 부시 전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을 자처,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2000년대의 선진 미국 교육'에 관한 야심찬 프로젝트다.

우리 몸을 가장 밑바닥에서 떠받들어 주는 가장 소중한 부분은 바로 발이야.

이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오산 부근의 편마암이 한반도에 분포된 편마암 중 가장 오래전에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29억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딱취속 가운데 가장 대형으로, 몸통길이가 평균 90mm이다.

1호 지석묘 유적의 가장 서편에 위치하는데, 광장마을 지석묘 중 규모가 제일 크다.

지석묘군 가운데 가장 윗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반의 가장 위층에 다람이가 갇혀 사는 통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사+관형격조사>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는 공산당 집권 시절의 반체제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민주주의자 연합이 21.4%,

가장 최소한의 요구인 책임자 구속과 백골단 해체부터 시작하라, 김영삼 씨와 그 추종 세력은 최소한의 양심 회복이라도 하라.

소비자들은 맥심을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가장 고급의 커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제품은 국내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 가장 고급의 커피로서 최고급의 커피를 선호하는 세분시장을 겨냥하여 제조되었다.

내가 원하는 진실을 위해서나 자네의 죄값을 줄이기 위해서나 그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도 있다 말일세.

본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긴 글이자 가장 근자의 논문인 [민족문화론과 리얼리즘론]은 대충 그런 취지로 씌어진 것이다.

<명사+명사>

소비자들은 냉동건조 커피 중에서 그랜디에 대해 가장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테이스터스 초이스, 맥심 모카골드, 네스카페 골드블랜드, 맥심(오리지날)의 순으로 되어 있다. 어디서나 과학이 준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과학의 가장 초기 시대부터 끊이지 않고 가속적으로 증대하여 왔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의 가족 윤리조차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이라는 가장 주요 부분이 멈춰서 있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 주요 동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명사+목적격조사>

이번 히말라야 8천 미터급의 마나슬루봉에 산소도 없이 단독으로 등정한 허영호(許永浩) 씨는 한국인으로서 극기의 가장 극한을 파시하였다는 차원에서 실로 자랑스럽기만 하다. 태양계의 초점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빛으로 약 500 초,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명왕성은 태양에서 빛으로 약 다섯 시간 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비극의 요체는 '행동 (praxis)'에 있고 또 이 행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반에 있어서 삶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명사+주격조사>

가로망 도시의 형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도로의 기능이 정치, 군사, 경제 등의 정책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는 국초부터 이의 재편성에 노력하였다. 선정 기준은 학력, 영농 규모,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의 여부, 의식 정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합산하여 채점하지만 가장 핵심은 '당성'이라고 한다.

D. '제일'

<명사+주격조사>

제일 고역은 큰 애 도시락 싸는 일이었다. 붉은병정개미의 이야기 알마스의 나의 연구소에 있는 곤충 중에 제일 명물은 노예(奴隸) 사냥을 잘 하는 붉은병정개미이다.

<명사+부사격조사>

투표 개표 결과를 일반 투표함을 모두 개표한 뒤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했다. 제일 처음에 흙을 넣고 그 다음에 콩을 넣고 흙을 넣었습니다. 썸의 역사 컴퓨터를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아라비아숫자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파뵈에는 파뵈에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의 이야기를 해주는 까닭에, 언제든지 난로 옆의 제일 뒷자리에 앉히는 이야기꾼의 한 사람이다. 제일 첫째로 더듬이에 있는 냄새를 맡는 기능이라는 것이 도대체 분명치 않다.

<명사+명사>

물론 자판의 제일 위쪽 줄에도 1, 2, 3 등 숫자가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으나 숫자 입력만 전문적으로 할 경우 일렬로 늘어선 숫자키를 번갈아 누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잃어버릴 것을 전제하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아니할 제일 하급 우산을 내가 차지한다. 이와 같이, 제일 첫째 코스에서 방울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므로, 다음의 다른 방울들도 모두가 잠잠하다.

<명사+관형격조사>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꾼이라고 해서 농민 동맹 부위 원장이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명사+명사>

문학도 그 변혁의 와중에서 적극적인 한몫을 담당함으로써 시대의 가장 선진적 사상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전에 없이 많은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문학적 전통의 확립을 보았다.

E. '매우'

<명사+적>

지난 대선 동안 유세를 통해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우리 쪽에서 용공음해했다면서 김 전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이 매우 감성적으로 훼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 작품이 보여 주는 길에 대한 사색은 다양한 차원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전개된다. 산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원주(공호석 역)가 보여주는 페미니스트적 섬약함, 그 능청스런 '오두방정' 연기와 이승에서 득도는 이미 단념했다고 떠벌이는 월명(최승일 역)의 익살스런 '가래침 설법' 연기는 산사의 잔잔한 일상적 분위기를 매우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극 전체를 신명나게 이끌고 있다. 케플러의 3법칙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매우 감격적으로 받아들인 천문학자가 독일의 케플러이다. 탐몰의 책은 그 가운데 한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데 적을 두었고, 그 목적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이다.